

애플 중국정부조달목록 제외는 자료미제출 때문

2014.8.7, 차이신망(財新網)

중국정부가 애플사 제품의 정부조달을 금지하였다는 루머에 대해, 중국 정부구매관리판공실이 오늘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애플 제품은 원래부터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목록 최종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답변이다.

8월 6일 중국정부가 iPad, iPad Mini, MacBook Air 등 10여종의 애플 제품을 정부조달 목록에서 제외하였다는 외국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는 한 익명의 정부관계자 언급을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애플 제품 10여 종을 조달대상제품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중국정부는 iPhone6도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가 나온 당일 저녁 차이신망 기자가 재정부와 관계된 업계 권위자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 조작된 내용으로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는 의견을 들었다. 그는 관계부서의 일차적인 확인조사 결과 이 보도의 출발점은 애플제품이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 목록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기자가 중국정부조달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7월 28일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가 발표한 16차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 목록에 애플제품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인사는 6월말 공시된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 1차 명단에 애플제품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종 조달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원인은 관계부서에서 확인중이지만, “ 애플이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이라고 언급했었다.

오늘 재정부 정부구매관리판공실은 차이신망 기자에게 성명서를 보내

애플사가 규정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제품 목록에 포함된 기업 제품은 반드시 중국 품질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에너지절약제품 인증서를 제출해야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에너지절약 공시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외국 제조업체는 공시기간 내에 외국기업증명, 보증서 등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정식으로 에너지절약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확인 결과, 애플은 중국의 에너지절약제품 인증서를 취득하긴 했으나, 에너지절약목록 공시 기간 중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자료와 보증문건 등을 제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애플사 제품은 정부조달 최종확정목록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중국정부조달웹사이트에 게재된 통지문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제품 1차 공시에 포함된 기업은 공시기간 내에 보증서, 판매자측 정부구매업무 담당자 및 담당업체 정보, 제품정보 및 기업정보, 해당 제품 정보 등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기업들은 이밖에도 기업등기증, 기업등기지역 변호사사무소가 제공한 법률의견서, 이 변호사사무소의 자격증명 등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이 넘도록 관련서류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에너지절약제품 목록에 포함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에너지절약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정부가 애플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자원운용 효율을 위해 국무원 지도하에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목록”을 발표하고, 이 목록은 보통 반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나, 정부조달제품 중 일부만 의무적으로 에너지절약 제품을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무구매제품 외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이 필수조건은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다. 이는 특별히 에너지절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면 중국정부 조달에 애플 제품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공정경쟁원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팡홍강(方紅剛) 독일전신(Detecon International GmbH) 중화권 부총재는 중국정부가 안전 문제로 애플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외부 시각은 적절치 않다고 여기고 있다. 만약 정말로 안전 문제 때문이라면 중국정부는 모든 외국기업 제품을 제외해야 할 텐데, ACER, DELL 등 외국 브랜드는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식이 나온 원인을, 7월 발표된 정부조달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목록에서 Symantec, Kaspersky의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이 제외된 후 외국에서 중국 정부조달 목록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팡홍강은 애플이 전체적으로 개인소비 시장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정부조달 여부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애플 휴대폰은 주로 정보통신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고, PC는 주로 전문 설계사 및 이공계 인사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으므로 정부조달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애플 태블릿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태블릿 판매에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나 토털솔루션업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월 23일 발표한 애플사의 분기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분기 매출액은 374억3200만달러로 전년동기 353억2300만달러에 비해 6%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77억4800만달러로 동기대비 12% 증가하였다. 그중 중화권에서의 매출액은 59억3500만달러로 동기대비 28% 증가한 바 있다.